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등부유럽 권역



이방인, 나는 그의 아블라(Abla)가 되었다

김민영

“

튀르키예 땅에 살고, 튀르키예어를 사용하고,
튀르키예를 자신의 조국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는 곧 튀르키예인이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2021년, 남편의 주재원 생활로 처음 이스탄불 땅을 밟던 시절,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것이 닫혀 있었다. 이스탄불의 맑았던 하늘과 달리, 마스크로 가려졌던 우리의 얼굴처럼 나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그때의 나는 튀르키예의 땅, 이스탄불에 살고 있었지만 한국어를 사용하고 나의 조국인, 한국을 매일 그리워했다. 보스포루스 해협에 비치는 햇살과 바람도 내게는 그저 세찬 슬픔이었다.

튀르키예 땅, 이삿짐을 풀고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지만 나는 한국어를 썼고, 이곳이 이스탄불의 어디 즈음인지조차 모르던 그때의 나는 이곳의 이방인이었다.

이스탄불의 삶을 시작하던 때, 코로나 19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은 답답함을 넘어 불안을 야기했었다. 아직 어린 녀석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가게에 가서 장을 보고,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다니는 엄마의 일상에서 튀르키예어는 그렇게 나에게 생존이었다.

이스탄불에서 처음 접한 튀르키예어는 겉보기에 영어와 알파벳과 비슷해 보였다. 이슬람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처음으로 안도했다. 답답함에 찾아본 인터넷 검색에서 튀르키예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의미가 변화하는 형태인 교착어로 한국어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영어나 중국어가 어순의 변화로 문장을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튀르키예어는 한국어처럼 조사와 어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어 전공자인 내게 튀르키예어는 다른 사람보다 쉽게 다가왔다. 생존의 이름으로 시작된 튀르키예어는 그렇게 나의 삶에 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패전국이 되어 유럽 열강에 의해 혼돈의 시기를 겪었던 튀르키예는 그때의 나와 같이 국가 생존의 위기에 처했다. 그 때, ‘무스타파 케말’, 튀르키예의 국부인 아타튀르크의 개혁으로 많은 것이 변화하기 시작되었다. 문자 개혁은 그의 문화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는데, 29자로 구성된 현재의 튀르키예어 로마자는 1930년대 ‘1353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개혁 이전의 튀르키예는 아랍 문자를 표기로 사용하였으나 아타튀르크가 주도한 개혁에 의해 1932년 튀르키예어 학회가 설립되었다. 전국적으로 이 로마자의 보급 운동이 시작된 후, 문자 해독력이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에서 90%까지 확대될 만큼 튀르키예의 문화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달리 튀르키예는 아타튀르크에 의해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어간다.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타튀르크에 대한 깊은 사랑은 혼돈의 상황에서도 주변의 다른 이슬람 국가와 달리 인간 활동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종교에 간섭받지 않는다는 세속주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그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튀르키예어는 교착어로 한국과 비슷한 특

징을 가지며, 세계 1차 패전국으로서 유럽 열강의 무수한 공격 속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자부심을 드러내기에 일본의 지배 속에서도 살아남은 한국어처럼 그 정서와 느낌이 매우 비슷하다. 또한 로마자를 차용하고 있기에 영어 알파벳이 익숙한 한국인이 배우기가 가장 쉬운 외국어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튀르키예를 처음 배우던 그 시절, 나는 선생님 이름 하나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초보였다. 나의 선생님 이름은 ‘ECE’, 그녀의 이름은 의미, 뜻을 가지고 있다. 영어에서 만나는 ‘마이클’, ‘사라’는 아무 뜻이 없지만, 튀르키예인 이름은 한국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름에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녀는 튀르키예어로 ‘여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나던 때,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에제’였다. 영어에 익숙했던 나는 그녀를 ‘에세’로 불렀고, 그렇게 나는 그녀에게서 튀르키예어의 굴곡부터 다시 배우게 되었다.

나는 아이처럼 새로운 말과 글을 배워갔다. 튀르키예어의 ‘C’는 한국어 자음 ‘ㅈ’와 같은 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을 알아가던 그때의 나, 그것은 어느새 일 년 전의 나의 모습이다. 현재의 나는 간단한 튀르키예 문장을 읽고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이따금 이스탄불의 생활 속에 아들의 친구 집에 가기 위해 튀르키예인에게 길을 묻는다. 그 속에서 ‘C BLOCK’을 ‘씨블록’이 아닌 ‘제블락’으로 말하는 나를 발견한다.

나는 장을 보기 위해 동네 야채 가게에 자주 간다.

집 근처 체인 마트보다 동네의 젊은 튀르키예인 청년 형제가 운영하는 야채 가게가 물건이 더욱 좋기 때문이다. 동네에 와서 처음 그 가게에 가던 그때, 물정 모르는 외국인인 내게 혹시나 바가지를 씌울까 싶어 튀르키예어로 가격을 묻는 표현인 ‘네 까다르(Ne kadar)?’만 열심히 외워 가게에 갔다. 그 시절 야채 가게 총각의 대답은 역시나 튀르키예어 숫자였다. 나는 아주 명확하게 그가 말하는 숫자를 들었지만, 소리를 듣고도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나에게 그는 멀리서 걸어오는 나를 보고 ‘아블라(Abla)’ 한국어로는 ‘누나’라며 나를 부른다. 나는 어느 때처럼 그에게 양파 가격을 묻고 2년 전보다 눈에 띄게 올라버린 물가를 탓하며 나는 그에게 너무 비싸다고 말한다. 그런 내게 그는 내게 말한다.

“*yi şey pahalı şey.*
이이 şey 파할르 şey
(좋은 것이 비싼 것이다.)”

그 소리에 한참을 웃곤 그에게 야채와 과일을 사곤 나 또한 한국어로 ‘수고하세요.’의 의미와 비슷한 ‘코라이 겔신(kolay gelsin)’을 말하곤 집으로 향한다.

처음 이스탄불, 이곳에 올 때만 해도, 나는 새벽 나절 모스크에서 울리는 예잔 소리에 잠이 깨곤 했다. 그러나 지금, 어느새 자동차 울림에 깨어나는 나를 발견할 뿐, 동네 전체를 울리는 예잔 소리에 미동도 없이 깊이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





두렵고 어색했던 동네 거리가 편해졌고 아이와 남편의 손을 잡고 튀르키예인 누군가에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묻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과 인사하며 고맙다며 ‘테셰쿨레(Teşekkür)’을 외친다.

새벽 나절, 예잔 소리에 잠이 깨어 불안한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던 나는,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 어느 한 동네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렇게 나는 어느새 튀르키예 땅에 살고, 튀르키예어를 사용하며 튀르키예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오늘도 그 누군가의 ‘아블라’가 되어 이스탄불을 걷는다.

모두의 타향살이의 시작이 그렇듯 지난 나는 참으로 고단했고, 한국과 달리 동네를 가득 울리던 예잔 소리에 불편했다. 그러나 튀르키예어를 배우고 알게 되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이 나라의 뉴스를 읽으며 튀르키예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을 이야기 나누면서 나는 다시 한 번 언어가 가진 힘을 느끼게 되었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 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